

#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 강렬한 케빈 워시의 첫 등판

- 주요 지수 일제히 약세: S&P500 -1.23%, 나스닥 -1.34%
- 연준, 금리 동결했지만 매파적 기조 강화
- AI 투자 확대 "(단기적으로) 수요와 물가 압력 증가"

### Summary

미국 증시는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함. S&P500은 1.23% 떨어진 7,418.61, 나스닥은 1.34% 내린 26,021.66으로 가장 큰 낙폭을 보였고, 다우존스지수도 0.92% 하락한 51,521.55로 마감함. 러셀2000 역시 0.69% 하락하며 전반적인 약세 흐름을 보임. 증시 전반의 하락세는 연준의 매파적 기조에 따른 것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두드러짐.

###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첫 등판'

워시 의장 체제의 미 연준은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3.50~3.75%)을 결정했지만, 성명문과 기자회견 시간이 상당히 단축되는 등 여러 가지 강렬한 신호들이 향후 금리 변동을 예고함. 워시 연준 의장은 연말까지 여러 분야의 현안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할 특별 워킹 그룹을 구성한다고 발표. 검토 대상 분야는 소통 메커니즘, 대차대조표, 데이터 활용, 생산성 및 고용, 그리고 연준의 인플레이션 프레임워크 등임. 주목할 점은 워시 연준 의장은 금리 전망에 대한 소위 "점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전망서를 제출한 18명의 정책 결정자들은 금리 방향에 대해 뚜렷한 의견 차이를 보임. 이들 중 9명은 올해 최소 한 차례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으며, 6명은 여러 차례의 금리 인상을 예상함. CME 페드 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올해 두 차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37%로 전망했는데, 이는 화요일의 17%에서 상승한 수치임. 또한 이번 회의에서 수정된 경제전망요약(SEP)도 발표되었는데, 올해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을 기존 2.7%에서 3.6%로 큰 폭 상향 조정하였고, 연말 정책금리 중간값은 3.4%에서 3.8%로 상향 조정됨. 연준 성명문과 워시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 미국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4.2%까지 상승하며 2025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블룸버그 달러화 지수는 3월 13일 이후 장중 최대 상승폭을 기록함.

### IEA "석유 수요 전망 큰 폭 하향 조정"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최신 월간보고서는 2026년 세계 수요 전망치를 전년 대비 하루 110만 배럴 감소로 대폭 하향 조정했는데, 이는 2020년(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대 하락폭임. 수요 전망치 악화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공급 차질로 인해 재고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전 세계 공식 비축량은 1990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짐. 향후 몇 달 동안 공급 회복이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 전 세계 재고는 더욱 감소하여 사상 최저치를 경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특히 미국과 이란이 휴전 협상을 가속화함에 따라 중동 지역 공급 회복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IEA는 휴전 협정이 성공적으로

체결되더라도 이란 및 중동 산유국의 원유 수출량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수개월 또는 그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 한편,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주간 원유 재고가 시장 예상치(-369만 배럴)를 크게 웃돈 826만 배럴 감소했다고 밝힘. 특히 미국 최대 상업용 원유 저장 시설인 오클라호마주 쿠싱의 재고는 8주 연속 감소하여 2014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함. 미국의 전략비축유(SPR) 또한 3억 4천만 배럴까지 하락해 198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상업용 재고와 더불어 미국의 전략 비축유 모두 감소했다는 것은 잠재적인 공급 충격에 대비한 미국의 이중 완충 장치가 크게 줄어들었음을 의미함.

### 건조한 미국 소비

미국의 5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9% 증가하며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고, 전년 대비 6.9% 증가해 약 3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급등하는 유가가 주유소 매출 증가에 기여했지만, 에너지 관련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소비는 건조한 흐름을 보임. GDP 집계에 사용되는 통제 집단 데이터 역시 예상치를 크게 상회함. 그러나 실질 임금 하락, 낮은 저축률, 저소득층의 부담 증가는 미국 소비가 점점 더 뚜렷한 'K자형'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함.뱅크오브아메리카는 5월 유가 급등으로 인해 모든 소득 계층에서 가처분 소득 비중이 2025년 같은 기간보다 낮아졌는데, 이는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상승 추세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밝힘. 특히 저소득 가구는 유가 변동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필수 소비 지출 비중이 중산층 및 고소득층보다 더 크게 증가하여 소득 계층 간 가처분 소득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고 밝힘. 다만 최근 유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점차 좁혀질 수 있을지가 향후 미국 소비의 회복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

한편, AI 투자 확대가 단기적으로는 수요 증가와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러한 매파적 신호에 따라 국채 금리는 상승했고, 달러화 가치도 강세를 보임. 주식시장은 이에 따라 전반적인 약세를 기록함. (다우 -0.92%, 나스닥 -1.34%, S&P500 -1.23%, 러셀2000 -0.69%)

## 특징종목

### 업종 및 ETF

S&P500의 11개 업종 모두 하락세를 보였으며, 통신·경기소비재·부동산·필수소비재 등이 2% 넘게 하락세를 보임. 산업재는 0.12% 하락하며 가장 작은 하락폭을 기록함. 매그니피센트 7 지수는 2.38% 하락한 반면, 메모리 반도체 및 하드웨어 지수는 1.78% 상승하며 상반된 모습을 보임. 연준의 매파적 금리 동결 영향으로 필라델피아 금은지수는 2.63% 하락함. 이에 은(SLV, -4.4%), 금광업체(GDX, -3.3%) ETF가 약세를 보임.

###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상향

GE베르노바(+6.4%)는 주요 증권사의 긍정적인 분석과 주주환원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함. 특히, Bernstein이 'Outperform' 의견과 함께 목표가를 제시했고, 1분기 주문량이 전년

대비 71% 증가한 점과 베네수엘라 전력망 재건 프로젝트 수주 소식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에이알엠 홀딩스(+5.6%)는 베인스테인 리서치가 AI 작업 부하 증가에 따라 서버 CPU 수요 증가 전망과 함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상승함. ARM 기술의 에너지 효율성은 AI 서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향후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함께 시장 입지 강화가 기대됨.

**호재 vs. 악재**

모더나(+11.5%)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노화된 성인을 위한 독감 백신의 주요 승인 절차에서 중요한 진전을 허가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함. FDA의 사전 브리핑 문서 발표로 인해 투자자들의 승인 기대감이 높아졌으며, 이는 향후 수익원 다각화와 연구 개발 동력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니큐어(+78%)는 3년간의 임상시험 데이터에 대한 FDA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바탕으로 헌팅턴병 유전자 치료제 AMT-130 에 대한 생물학적 제제 허가 신청(BLA)을 제출할 계획을 발표한 후 주가가 급등함. 리얼티 인컴(+5.7%)은 안정적인 월 배당금 지급과 함께 5.2%의 높은 배당 수익률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강점으로 작용함.

반면, 마이크로소프트(-3.87%)는 연준의 긴축 기조와 매크로 경계심리가 기술주 전반에 악재로 작용함. 또한, 오라클과의 30억 달러 규모의 딜을 포기했다는 소식이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줌. 메타플랫폼스(-5.37%)는 메타의 AI 부문 리더십 변경과 함께 인도 데이터센터 확장 소식에도 불구하고, AI 부문의 높은 자본 지출이 투자자들의 우려를 낳음. 내부 구조조정 소식도 부정적 영향을 줌.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sup>\* 6시 10분, KST 기준</sup>

**미 국채 2년물 '점프'**

채권 시장에서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50%를 기록하며 전일 대비 5.5bp 상승함. 이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나 올해 한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점과 핵심 물가 상승률 상향 조정에 따라 채권 수익률이 반등한 결과임. 특히 연준 통화정책을 반영하는 2년물 금리는 13bp 넘게 상승하며, 10년물과의 스프레드가 전일대비 8.5bp 감소한 30bp 수준까지 축소됨. 반면 독일과 영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각각 2.93%(-0.6bp), 4.75%(-2.7bp)로 하락하며 유럽중앙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약화됨.

**달러 3월 이후 최고치**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100.47을 기록하며 전일 대비 0.9% 상승해 3월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냄. 유로는 달러 대비 1.0% 하락한 1.15달러를 기록했고, 원/달러 환율은 1,529.26원으로 1.3% 상승하며 달러 강세 흐름을 반영함. 엔화 가치는 2024년 7월 이후 최저치인 160.74엔을 기록함. 이는 화요일 일본은행(BOJ)이 31년 만에 최고 수준인 1.0% 까지 기준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엔화의 구조적 약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반증.

### 유가 장중 높은 변동성

상품시장에서는 WTI 원유가격이 하루 동안 0.2% 하락한 75.91달러를 기록했으며, 브렌트유 역시 0.2% 내린 78.83달러를 나타냄. 이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공급 과잉 전망과 미국과 이란 간 잠정 휴전 합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임. 금과 은은 각각 1.8%, 3.3% 하락한 4,255.60달러와 67.69달러를 기록하며 금리 상승에 따른 기회비용 부담을 반영함.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